



## ‘-겠’과 ‘-을 것’의 의미 비교

엄재일

홍익대학교

jyeom@hongik.ac.kr

Hongik University 2005. 6. 1. 3

국립중앙도서관 2005. 6. 1. 3



### 서론

선어만 어미 ‘-겠’의 쓰임새: 최현배 (1937), 남기심 (1972)

- ◆ 서론
- ◆ 이산의 연구 - 기어이 (1978)
- ◆ 이경수 (1978)
- ◆ 이광순 (1991)
- ◆ 이일순 (1998)
- ◆ 심기진 (1979)
- ◆ 박경-남순/노은
- ◆ 송수자
- ◆ 마르코 나즈
- ◆ 김수영/김민
- ◆ 사연 후정
- ◆ 생인
- ◆ 고지-반지진
- ◆ 화자연
- ◆ 유정근
- ◆ 주현/이리
- ◆ 김철민/김리
- ◆ 태진성
- ◆ 이희
- ◆ Bibliography
- ◆ Bibliography'

- (1) 너는 참 좋겠다. (추정)
- (2) 나는 기어이 저기에 가겠다. (의도)
- (3) 나는 이제 알겠습니다. (능력/가능) - 추정으로 간주

‘-(으)르 것’(관형사형 어미 + 의존명사)의 용법: 서정수 (1978):

- (4) 이 사과를 내가 먹을 것이다. (피연의 사물)
- (5) 그는 내일 떠날 것이다. (추정)
- (6) 나는 기어이 저기에 갈 것이다 (의도)
- (7) 이 규칙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지령)
- (8) 이 나라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 (풀이가능: 먹을 것=식량)

□ 형태소적 구조: 김차균 (1981) 참조.

Hongik University 2005. 6. 1. 6

국립중앙도서관 2005. 6. 1. 6



### 이전의 연구 - 이기용 (1978)

- ▷ '-겠'과 '-(으)ㄴ 것'을 모두 추정양태소.
- ▷ '-(으)ㄴ 것'은 '꼭'과 '아마'와 함께 쓰이는 것으로 보아 강한 추정과 약한 추정 모두에 쓰이지만, '-겠'은 '꼭'과만 어울리는 것으로 보아 강한 추정만을 나타낸다.
- ▷ '-겠'이 화자의 의지를 뜻하는 것도 그것이 화자의 확신을 함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가정: '-(으)ㄴ 것'은 추정에만)

- (9) 그는 꼭 지옥에 가겠다.
- (10) 그는 꼭 지옥에 갈 것이다.
- (11) 아마 방 선생은 총각일 것이다.
- (12) \*?아마 방 선생은 총각이겠다.
- (13) 잘 모르지만 잠수교가 물에 잠겼[??겠/을 것이다].

□ 이정민(1973): 오히려 '-(으)ㄴ 것'이 화자의 강한 내적 추측을 뜻한다고 주장

❖ 서론  
 ❖ 이전의 연구 - 이기용 (1978)  
 ❖ 서정수(1978)  
 ❖ 정경(1991)  
 ❖ 이남준(1998)  
 ❖ 정기철(1979)  
 ❖ 독경 - 단송/논리  
 ❖ 손수/사건  
 ❖ 난포/비난주  
 ❖ 민석성/수업관  
 ❖ 새연/추정  
 ❖ 세환  
 ❖ 국세 - 반가친  
 ❖ 최시/민요  
 ❖ 추경/장도  
 ❖ 구관/객관  
 ❖ 조경환/기리  
 ❖ 태환/성  
 ❖ 의기  
 ❖ Bibliography  
 ❖ Bibliography'



### 이전의 연구 - 서정수(1978)

- ▷ '-겠'은 주관적 추정; '-(으)ㄴ 것'은 객관적 추정
- (14) 내 느낌에는 그이가 내일 떠나[겠/ㄴ 것이다]
- (15) 인성표에 따르면 그이가 내일 떠나[?겠/ㄴ 것이다].

- ▷ '-(으)ㄴ 것'이 '-겠'보다 더 확실한 추정
- (16) 난 죽[겠/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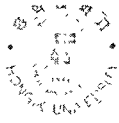
▷ '-(으)ㄴ 것'이 더 객관적인 증거에 바탕을 두어 더 확실성이 강함.

□ 문제점:

- (17) (상자에 흰돌 1개와 검은돌 1개), 이번에 검은돌이 나오면 흰돌이 남겠다.
- (18) (주사위를 던지면서) 6이 나올 거야.

❖ 서론  
 ❖ 이전의 연구 - 이기용 (1978)  
 ❖ 서정수(1978)  
 ❖ 정경(1991)  
 ❖ 이남준(1998)  
 ❖ 정기철(1979)  
 ❖ 독경 - 단송/논리  
 ❖ 손수/사건  
 ❖ 단송/비난주  
 ❖ 민석성/수업관  
 ❖ 새연/추정  
 ❖ 세환  
 ❖ 국세 - 반가친  
 ❖ 최시/민요  
 ❖ 추경/장도  
 ❖ 구관/객관  
 ❖ 조경환/기리  
 ❖ 태환/성  
 ❖ 의기  
 ❖ Bibliography  
 ❖ Bibliography'

□ 객관적인 판단에 '-겠'이 아무 근거없이 '-(으)ㄴ 것'



### 이전의 연구 — 고창운(1991)

- ◆ 시론
- ◆ 이전의 연구 - 이기운 (1978)
- ◆ 서경숙 (1978)
- ◆ **고창운 (1991)**
- ◆ 이남순 (1998)
- ◆ 정기철 (1979)
- ◆ 국경-단순논리
- ◆ 손수자
- ◆ 남주희/남주
- ◆ 언성형식론
- ◆ 시/현 추정
- ◆ 생략
- ◆ 문법-반사성
- ◆ 화자 인식
- ◆ 추정기도
- ◆ 구관역판
- ◆ 문장론
- ◆ 대안성
- ◆ 의지
- ◆ Bibliography
- ◆ Bibliography'

#### □ 고창운(1991)의 가정.

(i) 모든 추정에는 근거가 있고, (ii) 추정근거는 화자가 결정.

#### □ 주장:

- 가. '-겠': 추정의 근거를 화자-청자 공유;
- 나. '-(으)ㄹ 것': 화자의 추정의 근거를 청자는 모름.

- (19) A: 개 언니가 작년 미스코리아야.
- B: 그러면, 개 언니는 참 예쁘{겠다/??르거야}.

추정근거: (i) 언니가 미스코리아 (ii) 미스코리아는 예쁘다

#### □ 문제점:

- ▷ 용법의 차이만을 지적하고 의미적 차이를 제시하지 않음.
- ▷ 화자만 있고 청자가 없을 때는 차이가 없어지는가?

- (20) 내일 오전에는 비가 오겠지만 오후에는 개이겠습니다.
- (21) 나는 내가 떠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지?).
- (22) 영화가 온다면 철수로 오고 싶을 거야, 그지?



### 기존의 연구 - 이남순(1981, 1998)

- ◆ 시론
- ◆ 이전의 연구 - 이기운 (1978)
- ◆ 서경숙 (1978)
- ◆ 고창운 (1991)
- ◆ **이남순 (1981)**
- ◆ 정기철 (1979)
- ◆ 국경-단순논리
- ◆ 손수자
- ◆ 남주희/남주
- ◆ 언성형식론
- ◆ 시/현 추정
- ◆ 생략
- ◆ 문법-반사성
- ◆ 화자 인식
- ◆ 추정기도
- ◆ 구관역판
- ◆ 문장론
- ◆ 대안성
- ◆ 의지
- ◆ Bibliography
- ◆ Bibliography'

▷ 시술문에서 '-겠'은 화자의 배타적 판단을 나타내며; '-(으)ㄹ 것'은 청자나 제3자의 판단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인 판단을 나타낸다.

▷ 의문문에서 '-겠'이 청자의 배타적인 판단을 묻는다.

- (23) (선생님이) 가셨{겠/??을꺼}다 빨리 뱐자.
- (24) a.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겠/??을 것이}다
- b. (내가/철수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겠/을 것이}다

#### □ 반례

- (25) (너는 부정하겠지만) 너는 참 {??괴롭겠다/괴로운 거야}
- (26) 철수가 괴로울거야/괴롭겠다.
- (27) 너는 그곳에서 (내가 미리 연락해 놓은) 예쁜 아가씨를 만나게 될거야.

□ 추론은 화자 자신만이 하며, 이것은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화용적 문제.



### 기존의 연구 - 성기철(1979)

□ '-겠'과 '-(으)ㄹ 것'이 경험과 추정의 시간적 차이에 따라 변별된다.

(28) 비가 오{{(i)겠/(ii)을 것}}이다.

(28i)은 현재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28ii)은 지금 날씨가 쾌청한데,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한 것을 알 때.

□ 비판

다음 두 문장은 시간적 차이가 보이지 않음. (이남순 1981)

(29) 십년 전에는 꼬마였는데 지금은 많이 컸{을 것이/겠}다.

(30) 영희가 배가 고프{ㄹ 것이/겠}다.

▷ 시간적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두 양태소가 달리 쓰임.

- ◆ 서론
- ◆ 이전의 연구 - 이기훈 (1978)
- ◆ 서경숙 (1978)
- ◆ 고창호 (1991)
- ◆ 이남순 (1998)
- ◆ 성기철 (1979)
- ◆ 박경 - 단조논리
- ◆ 손수서진
- ◆ 닐스/비나스
- ◆ 언성학 / 언론
- ◆ 사연 구성
- ◆ 제안
- ◆ 문체 - 반사진
- ◆ 화자 인식
- ◆ 추정 정도
- ◆ 주관/객관
- ◆ 존경할 미래
- ◆ 태상성
- ◆ 의기
- ◆ Bibliography
- ◆ Bibliography



### 두 양태소의 특징 - 단순추측 vs. 논리적 필연

▷ 가정1: 만약 상자 속에 검은 돌 1개와 흰 돌 1개가 있고, 상자에서 돌 한 개를 꺼내려고 한다.

(31) 다음에 나오는 돌은 검은 돌{일거야/??이겠}다

(32) 다음에 검은 돌이 나오면, 상자에 남은 돌은 흰 돌이{?ㄹ 것이/겠}다

▷ 가정2: 상자속에 흰돌과 검은 돌의 비율이 99:1이다.

(33) 다음에 나오는 돌은 (아마) 흰돌이{ㄹ 것이/??겠}다.

□ 충분한 근거 없이 단순추측을 하는 경우 '-(으)ㄹ 것'을, 반대로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필연적인 결론에 대해서는 '-겠'을 사용.

- ◆ 서론
- ◆ 이전의 연구 - 이기훈 (1978)
- ◆ 서경숙 (1978)
- ◆ 고창호 (1991)
- ◆ 이남순 (1998)
- ◆ 성기철 (1979)
- ◆ 손수서진
- ◆ 닐스/비나스
- ◆ 언성학 / 언론
- ◆ 사연 구성
- ◆ 제안
- ◆ 문체 - 반사진
- ◆ 화자 인식
- ◆ 추정 정도
- ◆ 주관/객관
- ◆ 존경할 미래
- ◆ 태상성
- ◆ 의기
- ◆ Bibliography
- ◆ Bibliography



### 순수추론 vs. 사실추론

(34) 늦(??을 것이/겠)다 서둘러라.

- ◆ 기론
- ◆ 어휘의 연구 - 이기문 (1978)
- ◆ 어경수 (1978)
- ◆ 노창준 (1991)
- ◆ 이남준 (1998)
- ◆ 남기원 (1979)
- ◆ 어경수 - 단선논리

▷ '-겠': 사실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보)상태에서의 편연적인 결론  
 ▷ '-(으)르 것': 세상이 실제로 어떠한 것이라고 추측.  
 '-겠'. 조건(질) 없이 반사실적 추론 가능

- ◆ 순수사실
- ◆ 단선논리
- ◆ 인식적 조건론
- ◆ 새원 추정
- ◆ 개관
- ◆ 문법 - 반사실
- ◆ 화자 인식
- ◆ 추론기법
- ◆ 구권/역관
- ◆ 조건론 기법
- ◆ 디폴트
- ◆ 의제
- ◆ Bibliography
- ◆ Bibliography'

(35) 해가 서쪽에서 뜨(??르 것이/겠)다.

□ '-겠': 화자는 해가 서쪽에서 뜰 가능성을 믿지 않지만, 아주 믿기지 않는 상황이 전개된 경우 그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다고 추론할 뿐임.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에 쉽게 사용. - 인식적 양태

□ '-(으)르 것'을 사용할 경우 반사실적인 조건을 붙이지 않는 한, 실제로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됨. - 형이상학적 양태



### 단조적 vs. 비단조적

(36) A: 영화가 미인 대회에 참가했어  
 B: 그러면 예쁘겠다.  
 A: 근데, 팔씨름대회인줄 알고 참가했어.  
 B: 그러면 안 예쁘겠다

(37) A: 영화가 미인대회에 참가했어.  
 B: 그러면 미인일 거야  
 A: 근데, 팔씨름대회인줄 알고 참가했어.  
 B: 그럼 안 예쁠 거야

- ◆ 기론
- ◆ 어휘의 연구 - 이기문 (1978)
- ◆ 어경수 (1978)
- ◆ 노창준 (1991)
- ◆ 이남준 (1998)
- ◆ 남기원 (1979)
- ◆ 어경수 - 단선논리
- ◆ 어경수

- ◆ 단조/비단조
- ◆ 인식적 조건론
- ◆ 새원 추정
- ◆ 개관
- ◆ 문법 - 반사실
- ◆ 화자 인식
- ◆ 추론기법
- ◆ 구권/역관
- ◆ 조건론 기법
- ◆ 디폴트
- ◆ 의제
- ◆ Bibliography
- ◆ Bibliography'

▷ '-겠'의 경우 결론을 바꾸어도 화자가 잘못 추측한 것에 대하여 비난받지 않음.

▷ '-(으)르 것'은 비록 부족한 정보에 의한 오류라도 틀린 추측에 비난 가능.

□ '-겠'의 판단의 근거에는 비단조성을 보이는 명제가 포함됨



### 인식적 조건문

□ 인식적 양태의 조건문: 선행절의 사건이나 상태가 후행절의 사건이나 상대의 원인이 되지 않지만 선행절이 후행절의 판단 근거가 되는 양태의 조건문

- (38) 철수가 영희의 눈물을 도와줬다면. 둘은 사랑하는 사이이{르 거야/??겠}
- (39) a. 방에 불이 커져 있으면 철수가 집에 있을거야.  
b. 방에 불이 겨져 있으면 철수가 집에 있겠다.

▷ 일반적으로 인식적 양태의 경우 이미 세상의 사실은 정해져 있는데, 아직 정보의 부족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 직접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간접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것이 인식적 양태이다. 여기서 ‘-겠’이 자연스럽게 지 못한 것은 ‘-겠’이 일반적인 인식적 양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 잠정적 제언: 근본적인 차이는 일반적인 인식적 양태는 세상에 대한 추론이지만, ‘겠’은 세상에 대한 추론이 아니다.

- ◆ 서론
- ◆ 이력의 연구 - 이경숙 (1978)
- ◆ 서경숙 (1978)
- ◆ 보창수 (1991)
- ◆ 이남순 (1993)
- ◆ 정기진 (1979)
- ◆ 덕경 - 단순/논리
- ◆ 김수서경
- ◆ 니르스/나르
- ◆ **인식적 조건문**
- ◆ 새헌 추정
- ◆ 개관
- ◆ 근세 - 반사선
- ◆ 화자 변용
- ◆ 추경 정도
- ◆ 주관서경
- ◆ 진정된 거리
- ◆ 대상성
- ◆ 의식
- ◆ Bibliography
- ◆ Bibliogra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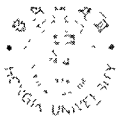
### 새 추정 vs. 현 추정

- (40) A. 모든 새는 날다 제비도 새다. 그러므로 제비도 날{??겠/을 것}이다.
- (41) A. 모든 새는 날다.  
B. 제비도 새다.  
A: 그러면, 제비도 날{겠/르 것}이다

▷ ‘-(으)르 것’은 이미 화자가 추정하여 믿고 있는 것을 말할 때에는 ‘-(으)르 것’만 쓰이고, 말할 당시에 새로운 사실이나 가정으로 부터의 추정의 경우에는 ‘-(으)르 것’과 ‘-겠’이 모두 쓰임.

▷ 이전에 추정이 이루어진 것은 새삼 다시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의미있는 발화가 되려면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이다. 반면에 새로 추정을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세상이 그럴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고, 단지 정보상태에 대한 추정만 할 수도 있음.

	새 추정	현 추정
‘-겠’	○	X
‘-(으)르 것’	○	○



- ◆ 기본
- ◆ 이권의 연구 - 이기우 (1978)
- ◆ 이경수 (1978)
- ◆ 노형호 (1991)
- ◆ 오남순 (1998)
- ◆ 정기철 (1979)
- ◆ 박경 - 단순/논리
- ◆ 순수/사실
- ◆ 닐즈/비타르
- ◆ 인식적 조건문
- ◆ 서천 주성
- ◆ 제안
- ◆ 문예 - 반사실
- ◆ 화자 믿음
- ◆ 구성경도
- ◆ 주관/객관
- ◆ 조건된 기어
- ◆ 타산성
- ◆ 의기
- ◆ Bibliography
- ◆ Bibliography'

## 제안

**형이상학적 양태** :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추론하는 양태

**인식적 양태** : 세상에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미 걸정이 되었지만 단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세상이 어떤 것이라고 추론하는 양태

**순수인식양태** *New*: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상관하지 않고, 현재의 정보의 상태에서 순수 논리적 추론을 할 뿐 세상이 꼭 그럴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음.

□ '-겠'은 순수인식양태에 사용하며 추론의 근거에 피단조성을 보이는 default rule 등이 포함됨.

현재의 지식상태:  $s$

$s = \{p_1, \dots, p_n\}$ , where  $p_i$  is a proposition (or possibly a default rule).

$s + p_n \vdash q$  (q겠다)

□ '-(으)ㄹ 것'은 형이상학적 양태와 인식적 양태에 사용됨



- ◆ 기본
- ◆ 이권의 연구 - 이기우 (1978)
- ◆ 이경수 (1978)
- ◆ 노형호 (1991)
- ◆ 오남순 (1998)
- ◆ 정기철 (1979)
- ◆ 박경 - 단순/논리
- ◆ 순수/사실
- ◆ 닐즈/비타르
- ◆ 인식적 조건문
- ◆ 서천 주성
- ◆ 제안
- ◆ 문예 - 반사실
- ◆ 화자 믿음
- ◆ 구성경도
- ◆ 주관/객관
- ◆ 조건된 기어
- ◆ 타산성
- ◆ 의기
- ◆ Bibliography
- ◆ Bibliography'

## 가능한 문제 - 반사실적 조건문

□ 일반적 가정· 반사실적 조건문은 형이상학적 양태에서만 쓰인다.

□ 문제: '-(으)ㄹ 것'과 '-겠'은 반사실적 조건문에 사용

(42) 내가 돌을 치우지 않았으면, 영희가 넘어졌{을 것이/겠}다.

(43) 내가 숙제를 하면 해가 서쪽에서 뜨{겠/ㄹ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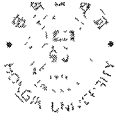
▷ 영어에서 반사실적 조건문(counterfactuals) 과 반믿음 인식적 조건문(belief-contravening epistemic conditionals) 구분.

(44) a. If Oswald didn't kill Kennedy, then someone else did.

b. If Oswald hadn't killed Kennedy, then someone else would have (Ernest Adams 1975)

□ 반믿음 인식적 조건문은 현재의 정보상태에 대한

순수인식추론, '-겠'도 순수인식추론. 단지 '국어에서는 두 조건문이 형태상으로 구분되지 않음.



### 화자 자신의 믿음

- ◆ 서론
- ◆ 이성의 연구 - 이기용 (1978)
- ◆ 서정수 (1978)
- ◆ 고정훈 (1991)
- ◆ 이남순 (1998)
- ◆ 정기철 (1979)
- ◆ 덕성 - 단교/논리
- ◆ 수주/사건
- ◆ 니콜스/나르
- ◆ 반석의 조건문
- ◆ 새천 주정
- ◆ 제언
- ◆ 문세 - 변사실

- ◆ 화자 믿음
- ◆ 주정강도
- ◆ 주관/객관
- ◆ 논정된 미리
- ◆ 대상성
- ◆ 의기
- ◆ Bibliography
- ◆ Bibliography'

□ '-거든'에 대한 제약. (염재일, in progress)  
 '-거든'의 조건문은 선행질의 사건이나 상태가 (i) 지각 가능한 것이든가; (ii) 청자(혹은 화자) 자신이 내적으로 직접 느끼는 내용이 와야 한다.

- (45) 내가 배고프거든 밥을 먹어라.
- (46) ??철수가 배고프거든 밥을 주어라.
- (47) 철수가 배고파하시든 밥을 주어라.
- (48) 철수가 키가 크거든 뒤에 앉혀라.

□ '-겠'이 '-거든'조건문의 선행절에 사용됨.

- (49) 이 문제를 풀겠거든 풀어봐라.

▷ 지각 가능한 경우는 아니므로 개인적인 느낌임.  
 ▷ 서정수(1978)의 주관적 판단, 이남순(1981, 1998)의 배타적 판단에 대한 증거들이 또한 화자의 믿음에 대한 증거로 간주될 수 있음.



### 이기용(1978)의 추정 강도

- ◆ 서론
- ◆ 이성의 연구 - 이기용 (1978)
- ◆ 서정수 (1978)
- ◆ 고정훈 (1991)
- ◆ 이남순 (1998)
- ◆ 정기철 (1979)
- ◆ 덕성 - 단교/논리
- ◆ 수주/사건
- ◆ 니콜스/나르
- ◆ 반석의 조건문
- ◆ 새천 주정
- ◆ 제언
- ◆ 문세 - 변사실
- ◆ 화자 믿음

- ◆ 추정강도
- ◆ 주관/객관
- ◆ 논정된 미리
- ◆ 대상성
- ◆ 의기
- ◆ Bibliography
- ◆ Bibliography'

□ 이기용 (1978): '-겠'이 강한 추측:

- (50) 아마 방선생은 총각이{??겠/ㄹ 것}이다
- (13) 잘 모르지만 삼수교가 물에 잠겼{??겠/을 것}이다.

▷ (50) '-겠'은 논리적인 추론이므로 정도의 문제가 아님.

- (51) 방선생이 총각일 가능성이 있겠다.

▷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 유무의 문제.  
 ▷ (13) 화자 본인의 내적인 추론에서 오는 결론이므로 본인이 알아야 함 ('-(으)ㄹ 것'은 단순 예측도 가능.)

□ 논리적인 추론에는 정도가 없지만, 세상에 대한 추정은 정도가 있음





## 서정수(1978)의 주관/객관

- (52) 내 느낌에는 그이가 내일 떠나(ㄹ)겠/ㄹ 것이다
- (53) 일정표에 따르면 그이가 내일 떠나(ㄹ)겠/ㄹ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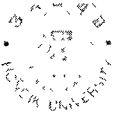
□ '-ㄹ'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순수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나, 순수인식상의 논리적 추론이므로 주관/객관의 구분이 필요 없음.

A의 정보  
A B 공유정보

▷ 고창운(1991)은 '-ㄹ'이 공유정보로부터의 추론에만 쓰인다고 주장하는 것.

□ '(으)ㄹ 것'이 더 강한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ㄹ'과 같이 단순한 정보상으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주장하는 것이므로 구속력이 더 강함.

- ◆ 서문
- ◆ 이권의 연구 - 이기운 (1978)
- ◆ 서정수 (1978)
- ◆ 고창운 (1991)
- ◆ 이남순 (1998)
- ◆ 성기철 (1979)
- ◆ 박경 - 단순/논리
- ◆ 송수자강
- ◆ 단희/탄조
- ◆ 언식경/조산산
- ◆ 새천추정
- ◆ 새단
- ◆ 문재 - 반사친
- ◆ 최사민은
- ◆ 추정진도
- ◆ **진정한 미래**
- ◆ 김강한/기리
- ◆ 대상성
- ◆ 의기
- ◆ Bibliography
- ◆ Bibliography'



## 진정한 미래 - '-(으) ㄹ 것'

□ '-ㄹ': 순수 논리적 추론은 현재의 정보상태에서 이미 필연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추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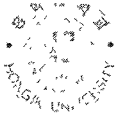
□ '-(으)ㄹ 것': 현재의 정보상태에서 결정되지 않은 세상의 일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29) 비가 오((i)겠/(ii)을 것이다).

(29i)은 현재의 상태에서의 추론,  
(29ii)은 미래에 대한 예측.

□ 성기철(1979)은 경험의 시간적 차이에 따라서 구별된다고 했지만, 현재의 상태와 시간적으로 떨어진 미래는 미래에 대한 순수한 예측의 경우이고, 현재에 대한 경험은 현재의 정보의 일부이며 현재의 정보상태에서의 추론의 근거가 되므로 '-ㄹ'은 사용하게 되는 것임.

- ◆ 서문
- ◆ 이권의 연구 - 이기운 (1978)
- ◆ 서정수 (1978)
- ◆ 고창운 (1991)
- ◆ 이남순 (1998)
- ◆ 성기철 (1979)
- ◆ 박경 - 단순/논리
- ◆ 송수자강
- ◆ 단희/탄조
- ◆ 언식경/조산산
- ◆ 새천추정
- ◆ 새단
- ◆ 문재 - 반사친
- ◆ 최사민은
- ◆ 추정진도
- ◆ **진정한 미래**
- ◆ 대상성
- ◆ 의기
- ◆ Bibliography
- ◆ Bibliography'



### 임흥빈 (1980)의 대상성

□ 임흥빈 (1980): '-겠'은 대상성을 나타냄.

- ◆ 서론
- ◆ 이례의 연구 - 이가옥 (1978)
- ◆ 서정수 (1978)
- ◆ 이항순 (1991)
- ◆ 이남순 (1998)
- ◆ 이기진 (1979)
- ◆ 박경 - 단종/논리
- ◆ 이수/사건
- ◆ 단종/사건
- ◆ 관성적 조건
- ◆ 세/연 수정
- ◆ 세/간
- ◆ 문세 - 변가성
- ◆ 회서 변은
- ◆ 수정경도
- ◆ 주권/적화
- ◆ 주정환 기리

- (54) 하루종일 일을 했더니 피곤해 죽{겠/??을 것이}다.  
(임흥빈 1980, (8a,11a))
- (55) ??하루종일 일을 했더니 피곤하{겠/르 것이}다.
- (56) 이제 {??않니다/알겠습니다}.

□ 설명:

- ▷ (54): '-겠'은 미확인 정보에 의한 화자 자신의 순수인식적 추론
- ▷ (55): 이미 확인된 것을 추론하는 것은 화용적 규칙을 어기는 것.

▷ (56): 알고 있다고 하면 상대방의 설명없이 안다는 뜻이 되고, 상대방의 설명을 이해했을 경우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아직 없었으므로 추론하는 형식을 취함. 임흥빈(1980)에서처럼 가능/능력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임흥빈(1981)의 대상성도 역시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나타남.



### 의지의 의미해석

- ◆ 서론
- ◆ 이례의 연구 - 이가옥 (1978)
- ◆ 서정수 (1978)
- ◆ 이항순 (1991)
- ◆ 이남순 (1998)
- ◆ 이기진 (1979)
- ◆ 박경 - 단종/논리
- ◆ 이수/사건
- ◆ 단종/사건
- ◆ 관성적 조건
- ◆ 세/연 수정
- ◆ 세/간
- ◆ 문세 - 변가성
- ◆ 회서 변은
- ◆ 수정경도
- ◆ 주권/적화
- ◆ 주정환 기리
- ◆ 대상성

- (57) A: 누가 갈꺼냐? B {내가/철수가} 갈꺼야
- (58) A: 누가 가겠냐? B {내가/??철수가} 가겠다.

▷ 이남순(1998)은 '-(으)르 것'이 포괄적인 판단이라서 3인칭의 의지도 나타낸다고 주장. 그러나 제3자의 의지는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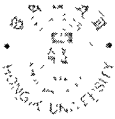
- (59) ??철수가 기어코 갈시야!

▷ 의문문의 경우는 2인칭에서만 의지의 의미를 가짐.

- (60) a. {네가/??내가} 가겠냐?
- b. {네가/??내가} 갈꺼냐?

□ 결국 의지는 화자(의문문에서는 청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추정에서와 같은 '순수인식/세상'의 구분이 없음.

□ 반면, '-겠'은 의지의 의미는 본질적; '-(으)르 것'의 의지는 파생적. (서정수 1978)



## Bibliography

- ◆ 서론
- ◆ 이진희의 연구-이기용 (1978)
- ◆ 서정수(1978)
- ◆ 고창순(1991)
- ◆ 이남순(1998)
- ◆ 남기철(1979)
- ◆ 옥경-단순/논리
- ◆ 안수희김
- ◆ 안조/안조
- ◆ 안석영-조연근
- ◆ 서현 추정
- ◆ 색관
- ◆ 문서-반사질
- ◆ 최자 민은
- ◆ 추성자고
- ◆ 구관/역관
- ◆ 조경란 기어
- ◆ 대관성
- ◆ 의지
- ◆ Bibliography
- ◆ Bibliography

- [1] '-겠-'과 '-는 것아-'의 용법. 「한국어문학」 제15·16합집, 595-614.
- [2] 김차균. 1981. {을}과 {겠}의 의미. 「한글」 173·174.
- [3] 남기심 (1972) "현대 국어 시제에 관한 문제." 「국어국문학」 55-57 합병호
- [4] 서정수. 1977. '-겠'에 관하여. 「말」 2. 연세대 한국어학당.
- [5] 서정수. 1978. '-을 것'에 관하여. 「국어학」 6.
- [6] 안명철. 1983. 현대국어의 상상 연구. 「국어연구」 56.
- [7] 이기용. 1978. 언어와 추정. 「국어학」 6.
- [8] 이남순. 1981. '겠'과 '을 것' 「관악어문연구」 6.
- [9] 이남순. 1998 시제·상·서법 원인.
- [10] 이정민 1973 언어행위에 있어서의 상상구조. 남기심 (공편), 현대국어문법. 대구:계명대학출판부, 번역새수록 (1975).



## Bibliography

- ◆ 서론
- ◆ 이진희의 연구-이기용 (1978)
- ◆ 서정수(1978)
- ◆ 고창순(1991)
- ◆ 이남순(1998)
- ◆ 남기철(1979)
- ◆ 옥경-단순/논리
- ◆ 안수희김
- ◆ 안조/안조
- ◆ 안석영-조연근
- ◆ 서현 추정
- ◆ 색관
- ◆ 문서-반사질
- ◆ 최자 민은
- ◆ 추성자고
- ◆ 구관/역관
- ◆ 조경란 기어
- ◆ 대관성
- ◆ 의지
- ◆ Bibliography
- ◆ Bibliography

- [1] 임흥민(1980) "{-겠-}과 대상성" 「한글」 23. 170호 587-630. 한글학회.
- [2] 장경희 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 [3]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인회전문 출판부.
- [4] Adams, E. W 1975 *The Logic of Conditionals* Dordrecht: Reidel.